

신화적 상상력을 경유하여 현실에 개입하는 소설의 확장된 의미

— 구병모의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을
텍스트로 한 발표와 토론 수업을 바탕으로 —

이채원*

본 논문은 학제적 융합과목인 ‘문학과 젠더’ 강의에서, 동화와 신화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소설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토론한 실제 수업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문학과 젠더’ 교과목은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문학텍스트 읽기에서 시작하여 이를 현재 사회문화와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사유하고 토론하는 수업이다.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은 신화적 상상력을 경유한 판타지적인 소설이면서 현실세계에 문학적으로 개입하여 현실세계를 형상화하는 텍스트이다. 본고에서는 해당 텍스트의 분석과 해석을 통한 수강생들의 사고 확장 과정을 고찰하고 나아가 ‘타자에 대한 이해불가능’과 ‘역지사지’, ‘여성 살해’와 ‘대항폭력’이라는 논점들을 담고 있는 이 소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생들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실감하는 논쟁지점을 다룬다. 해당 수업에서는 허구서사인 소설에서의 대항폭력을 현실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논점으로 여성혐오언어에 대한 대항서사인 ‘미러링’이 선택되었으며, 미러링의 의도와 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풍부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미러링은 타자의 자리에 서 볼 생각조차 없었던 이들을 역지사지의 지평에 서게

* 한남대학교, 강사, dike97@hanmail.net

한다는 궁극의 의도와 전략을 가진 것이다. 문학은 대항담론, 대항서사로서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미러링 등의 대항서사는 문학적 미학적성까지 추구할 수 있다. 수강생들이 해당 소설텍스트를 향유하며 문학의 미학과 사회적 의의를 체험하고 ‘문학’을 통해 ‘젠더’를 사유하는 융합적 사고능력과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연마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논한 것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하르피아와 축제의 밤’, 문학과 젠더, 신화, 대항서사, 미러링

I. 서론

소설이 신화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가져오는 이유는 신화 속의 인물에게 가해진 (대체로 비극적인) 운명에 대응하는 양상들이 지금 현실세계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지평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실세계를 진단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신화가 “실재에 바탕을 두어 그럴듯하게 묘사해야 한다는 리얼리즘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인간의 상상력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장르”(박정오, 2006, 639)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화 역시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주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또한 신화는, 동화나 민담 등과 마찬가지로 체제수호적인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신화에서 ‘금기 설정- 위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서사구조가 나타나는데, 금기는 모든 이들에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금기’가 특정집단, 특정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므로 금기를 어기는 ‘위반자’는 금기에 저항하면서 차별에도 저항하게 된다. 위반자는 때로 영웅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때로 호모 사케르적인¹⁾ 인물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든 위반자는 지배기득권층에게 위협요인이 된다. 따라서 위반

1) 아감벤(Agamben, Goergio)에 의하면 호모 사케르는 정치적, 법적으로 배제된 존재이다. 호모 사케르는 문명사회에서 추방되어 별거승이의 삶을 사는 존재이며, 버려져 도 상관없는 존재를 정하는 것은 주권 권력(국가 권력)이다.

자는 희생양이 되어 제거되는 경우가 많고 그럼으로써 공동체는 (표면적인) 평화와 안정을 얻는다. 이때 위반자 희생양에 대한 공동체의 처벌은 상당히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소설에서 신화를 재구성하면서 신화가 가진 체제수호적인 이데올로기와 희생양을 향한 공동체의 폭력에 저항하는 대항담론이 되며 이는 소설이 현실에 개입하는 한 방식이기도 하다. 신화를 소재로 취하는 소설 속에서 신화는 원형으로 자리하며, 소설은 원형에 대한 해석과 재구성을 통해 신화 속 인물들을 새롭게 탄생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설작가의 현실 인식과 주제의식과 지향점이 반영된다.

본 논문에서는 H 대학교의 교양 선택 과목인 ‘문학과 젠더’ 강의에서 동화와 신화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소설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구병모, 2017)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토론한 실제수업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텍스트 해석을 통한 학생들의 사고 확장 과정을 소개한다. 신화적 상상력을 경유한 이 소설이 어떤 수사학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를 형상화 했는지 논하고 소설 속에서의 핵심 논쟁지점이 현실사회를 반영하는 양상에 대한 수강생들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서술한다. 여기서 학생들이 논점을 확장해 가는 과정 또한 고찰한다. 나아가 ‘타자에 대한 이해 불가능’과 ‘페미사이드(Femicide)’라는 묵직한 사유와 뜨거운 논점을 담고 있는 이 소설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실감하는 논쟁지점을 답사한다.

‘문학과 젠더’ 교과목은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문학텍스트 읽기에서 시작하여 이를 현재 사회문화와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사유하고 토론하는 수업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무지로 인해 페미니즘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페미니즘의 의미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문학 장(場) 안에서 페미니즘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소재이자 사상이자 방법론이 되고 있다. 또한 첨예한 젠더 갈등 시대에 ‘젠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대학교육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문학텍스트 읽기에서 시작하는 ‘문학과 젠더’ 수업은 젠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감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4주차까지는 문학과 젠더와 관련된 개념들과 담론들에 대한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고 5주차부터 수강생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발표와 토론을 위해 총 9개의 텍스트가 선정되었는데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은 5번째 발표와 토론 텍스트이며 수업차시로는 9차시에 해당된다. ‘문학과 젠더’ 교과목은 총 4반으로 분반되어 있으며 각 분반의 수강생 인원수는 30명 정도이다. 여학생의 비중이 60퍼센트 정도이며 수강생들의 전공과 학번은 다양하다. 수강생들은 학기 초에 발표텍스트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자신이 발표하고 싶은 텍스트를 선택하여 조를 구성하고 조모임을 진행한다. 발표시간 전까지 수강생들은 해당 텍스트를 읽고 서평을 온라인 게시판에 업로드하며 발표수업 당일에 조발표가 끝난 후에 발표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이어간다. 본고에서 논할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은 가장 열띤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진 텍스트이다. 그만큼 많은 논점들을 내포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텍스트의 저자인 구병모는 등단작인 『위저드 베이커리』(2009)부터 시작해서 줄곧 신화와 동화를 소설에 가져와서 판타지적인 서사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이다. 하지만 그 판타지적인 세계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으로 향한다. 고영진은 구병모가 “재난이 일상이면서 동시에 계급화 된 세상 속에서 피난마저도 봉쇄당한 평범한 사람들의 반응을 환상과 동화라는 전략적 수사로 구현”한다고 해석하고, 구병모가 이러한 문제의식과 전략적 수사방법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면서 자신의 단편소설을 하나의 맥락을 가진 연작소설 계열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단편소설의 외연을 확장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덧붙인다(고영진, 2017, 153-154).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고영진은 「조장기鳥葬記」, 「식우」, 「여기 말고 저기, 그래 어쩌면 거기」, 「타자의 탄생」, 「땡굴손증후군의 내력」, 「고의는 아니지만」, 「빨간 구두당」 등 다수의 단편소설들을 분석한다. 그런데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은 고영진이 말하는 ‘구병모가 구성한 연작소설 계열’에서 비껴간다. 단편소설집 『고의는 아니지만』과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을 대상으로 “구병모 소설의 재난 의식과 에코페미

니즘의 상상력”(정연희, 2022)을 논한 정연희의 연구에도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은 해당되는 텍스트가 아니다. “현대소설에서 나타난 생태학적 정체성 양상”(안아름, 2017)을 논한 안아름의 논문에서도 구병모의 「덩굴손증후군의 내력」이 분석되지만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은 이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구병모의 「한 스푼의 시간」을 중심으로 “캐릭터 AI와 현대환상서사의 새로운 지형”(고영진, 2022)을 탐구한 고영진의 글과 구병모의 등단작이자 독특한 성장서사를 구축한 『위저드 베이커리』 분석을 통해 “청소년 환상소설의 문학교육적 의미와 ‘가치의 세계’”(나병철, 2010)를 고찰한 나병철의 연구에도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이 자리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즉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은 선행 학술논문에서 전혀 연구되지 않았으며, 신화와 동화를 차용하는 서사전략과 만연체의 문체와 반전과 충격과 불친절한 도약을 내포한 결말구성 등에서 구병모의 에토스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단편소설이면서도 구병모의 여타 다른 소설들과 차별화 된다.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은 ‘페미니즘 소설’이라는 표제를 단 소설집 『현남오빠에게』(2017)에 수록되어 있다. 조남주, 최은영, 김이설, 최정화, 손보미, 구병모, 김성중 등 7명의 여성작가들의 단편이 수록된 소설집 『현남오빠에게』는 페미니즘 리부트와 백래시가 충돌하는 정점에서 기획된 소설집이라고 할 수 있으며, 7명의 여성작가들은 각자의 시선과 경험과 언어로 당대의 한국사회문화의 젠더지형을 소설로 형상화 했다.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은 신화적 상상력을 경유해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될 수 있는 지점을 겨냥하며 전복적이고 전투적인 서사세계를 구축한다.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신화와 동화와 현실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여성 살해(Femicide)’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이 소설은 불친절하기에 더더욱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텍스트이다. 이 소설 속에서 다양하게 언급되는 동화와 신화의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까지 모두 치밀하게 구성되었으면서도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서사전략이 긴장되고 흥미로운 독서과정을 이끌어낸다. 즉 학생들에게 단편소설의 미학과 사회적 의미를 체험하게 하며 ‘문학’과 ‘젠더’의 융합적

사고확장에 매우 적절한 작품이라는 판단에서 해당 차시 수업텍스트로 이 소설을 선택했다.

수강생들은 처음에는 해당 텍스트를 다소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조모임과 조별발표,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 상당한 사고 확장 과정을 보여주었다. 해당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확장된 적용뿐만 아니라 해당 텍스트에서 재현된 폭력과 폭력에 대한 대응, 선행폭력과 대항폭력이라는 만만치 않은 논점을 현실세계에 접목시켜서 현재 한국사회 (젊은)여성들의 달라진 대응방식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본론 II장에서는 소설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이 현실에 개입하는 소설적 방식과 그 미학적/사회적 의의를 분석하고 해당 텍스트에 대한 수강생들의 해석과 사고의 확장내용을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이 소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들 중에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한 논점들과 토론내용을 서술하고 그 의의를 분석한다. 단편소설 한 편이 가진 두터운 의미의 층들과 독특한 구성방식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현재 자신이 처한 사회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유하며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사고와 표현의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논문은 ‘문학’과 ‘젠더’의 학제적 융합적 교양교육 사례를 보여주는 한 전범(典範)이 되리라 기대한다.

II. 소설 속 신화적 세계에 대한 현실적 해석과 확장

1. 인용과 상징으로 가득한 서사구성 방식이 구현한 미덕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의 공간적 배경은 두 곳으로 구획된다. 시선과 서술의 주체인 인물화자 ‘표’가 현재 위치한 섬과 표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도시이다. 그러나 표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도시는 표의 회상에 의해서 묘사될 뿐

주된 공간적 배경은 표가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배를 타고 들어온 섬이며 그 섬은 분명 현실세계이지만 현실적으로 납득 불가능한 신화적 세계이기도 하다. 이 소설의 서두는 구병모 작가 특유의 만연체 문장으로 시작되며 첫 문장 만으로는 상황파악이 쉽지 않고 첫 문장이 다음 문장의 독해를 이끌어가고 독자의 추리와 재구성을 요구하는 서술구조를 취한다.

고요만 감도는 골목길로 뛰어들었을 때 비로소 사냥꾼들의 사정거리에 서 벗어나 피와 먼지바람 한복판을 빠져나왔다는 안도감과, 한편으론 구체적 형상을 띤 이 골목길의 광경 또한 수많은 속임수 가운데 하나일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의식 한가운데로 밀려왔고, 정신없이 달리느라 잊은 동안 발뒤꿈치에 흘러 질척거리는 피가 뒤늦은 통증의 신호를 보내왔다..... 작은 한숨을 토하고 한쪽 다리를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숙이자 낭창낭창한 힐 한쪽만으로 버티고 선 다리의 근육이 찢어질 듯 당겨왔다(구병모, 2017, 203).

그러나 스테레토 힐은 결코 발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춤추어야 하는 왕비의 달군 무쇠구두처럼, 사형 집행인의 도끼에 발목이 잘릴 때까지 춤출 수밖에 없는 카렌의 빨간 구두처럼, 표가 발에 썸이것은 두 개의 달 위를 걷는 모카신인지도 몰랐다. 벗을 수 없는 건 구두만이 아니었다.....아마도 옷이 몸을 죄는 감각이 살과 들러붙었다는 느낌으로 변질된 듯싶지만, 네소스의 피가 묻은 옷을 입고 몸부림치다 제 살을 뜯어낸 헤라클레스가 마지막 순간에 꼭 이랬을 것 같았다(구병모, 2017, 204-205).

소설의 도입부에서부터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한 독자의 몰입과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사냥꾼들’로부터 도망친 골목길에서 구두가 벗겨지지 않는 현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표’는 여장남자대회에 참가한 남성이며 구두뿐만 아니라 옷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기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왕비의 달군 무쇠구두’, ‘카렌의 빨간 구두’ 등의 동화와 ‘네소스의 피가 묻은 옷을 입은 헤라클레스’라는 신화 속 인물 이야기, ‘두 개의 달 위를 걷는 모카신’ 같은 인디언 속담까지 여러 배경지식과 그것으로부터의 의미유추가 부과된다. 또한 동화와

신화와 속담(민담)은 소설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적 메시지의 원형이기도 한다. 벗겨지지 않는 구두와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두 개의 달 위를 걷는 모카신’은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타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소설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수강생들의 발표와 토론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표에 의해서 언급된 ‘카렌의 빨간 구두’는 무척 잔혹한 동화이다. 동화를 일컬어 “정신세계를 압박하는 닫힌 텍스트”(에코, 2009, 135)라고 규정한 에코(Umberto Eco)의 언술은 동화가 기존사회의 관습과 질서를 존속하려 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동화 속에서 위반자에 대한 공동체의 처단은 가혹할 수밖에 없고, 안데르센의 여성혐오는 신분과 연령을 막론하고 모든 여성인물에게 금기와 위반에 대한 처단이라는 서사를 반복하게 했다. 교회에서 검은 구두 대신 빨간 구두를 신은 카렌은 그 대가로 ‘붉은 수염을 가진 문지기’의 저주 그대로 춤을 멈추지 못하고 자신의 발목이 잘린 후에 참회한다. 여성에게 엄격한 관습과 규율은 그 위반에 대해서도 폭력적인 응징을 가한다. 이 동화는 욕망을 가지는 여성은 발목이 잘리는 처벌 같은 잔혹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에코의 전언대로 ‘정신 세계를 압박하는 닫힌 텍스트’이며 기존 주류 이데올로기에 복무한다. 동화에 대한 재해석과 재평가 역시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의 주요 논점 중 하나이다.

독서가 진행되면서 표가 신은 구두가 벗겨지지 않는 것이 신화적(동화적) 상상력을 경유하여 보다 정교하게 고안된 서사장치임을 알게 된다. 섬에 초대된 이들은 성범죄자들이었고 무대에 오른 그들에게 화살을 쏜 이들은 현실사회에서 가해자에게 관대한 법적응용으로 인해 처벌을 피해간 성범죄자들을 섬으로 유인한 재판관이자 집행자들이다. 이들은 표의 시선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달빛을 등지고 서서 표를 둘러싼 이들은 검은 후드를 쓴 사냥꾼들이었다.
어두운 그림자 한가운데서 필력은 후드 자락은 맴돌류가 날개를 펼친 듯

보였고, 저마다 옆구리 아래로 내린 활은 갈퀴 모양의 발톱인 양 날카로운 빛을 냈다(구병모, 2017, 238).

표가 묘사한 이들의 모습에서 제목에서 제시된 ‘하르피아이’의 의미도 드러난다. 저자 구병모는 작가의 말에서 “하르피아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과 새의 몸을 지닌 괴물로 뜻은 ‘약탈하는 여인’이다.”(구병모, 2017, 242)라고 소개하고 이어서 여성을 괴물 아니면 요정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성녀-창녀의 이분법만큼이나 오래된 문화적 서사적 관습이라고 덧붙인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약탈하는 여인’이라는 부정적인 뜻을 가진 괴물이었던 ‘하르피아이’는 작가의 변용에 의해서 맹금류가 날개를 펼친 듯한 후드를 쓰고 갈퀴 모양의 발톱인 양 날카로운 빛을 내는 활을 든 사냥꾼/심판관이 되었다. 작가의 신화적 상상력을 경유한 하르피아이는 더 이상 약탈하는 괴물이 아닌 적극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처단자가 된다. 그렇다면 표는 그들의 심판관 처단으로 죽는 것이 마땅한가? 이는 수강생들의 토론 과정에서 많은 이견들이 제시된 질문이며 보다 심화된 문제를 제기하게 한 질문이기도 하다.

표는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성범죄자가 아니다. 성범죄자인 ‘한’ 대신, 한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대신 참가한 것이다. 하지만 서사 내에서 표는 자기 변명과 자기합리화에 열심인데, 이는 그가 결백하다고 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표’가 결백하지 않다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범죄 관련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인 ‘2차 가해’의 문제와 연결된다. 또한 ‘방관’의 유무죄 여부와 ‘중립’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라는 묵직한 사유도 내포한다. 표의 회고적 서술에 의해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은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일 년 남짓 동거한 여자친구가 헤어지기 전, 최소한의 상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너도 같은 인간이 되고 싶어서인지 혹시 한에게 뭐 약점이라도 잡혔거나 아니면 나중에 콩고 물이라도 빼먹을 게 있어서인지 물은 적 있는데, 그때 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었다(구병모, 2017, 222).

한 사람만 무시하면 회사가 굴러가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것까진.....
그런 무해한 척하는 순진함은 사실 나태함의 다른 이름이고 결국 넌 기꺼이 2차 가해자로 복무한 거야.....말이 심하다니 천만에, 그걸 복무가 아닌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니.....피곤하다고? 저쪽은 인생이 조각났는데 고작 피곤함 따위를 내세우게 생겼냐고(구병모, 2017, 224).

오직 중립의 세계에서 가능한 한 변색이나 탈색 없이 충실하게 살아왔을 뿐인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이렇게 한데 뭉뚱그려 사냥 대상이 되기엔 억울하다는 탄원을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구병모, 2017, 233).

표의 회사 동료 한이 같은 회사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막강한 배경을 바탕으로 집행유예 처리되고 대형로펌을 끼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를 그만두게 만드는 상황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빈번한 직장 내 성폭력이나 권력형 성범죄의 양상 그대로이다. 표는 가해자인 한과의 관계를 계속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자친구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심지어 “한 사람만 무시하면 회사가 굴러가는데”라고 생각한다. 그 한 사람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공동체를 지속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는 르네 지라르의 ‘마이너스 1의 평화’를 연상시키는 사고방식이다. 한 사람의 희생양을 만듦으로써 공동체는 유지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인과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누구라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2차 가해는 특히 성범죄에서 빈번한데 표는 ‘방관’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중립이 결국 가해자의 포지션에 서게 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르피아이의 현현 같은 외관을 한 심판관들은 표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 맹금류의 날개처럼 보이는 후드옷을 입고 갈퀴 모양의 발톱 같은 활을 늘어뜨린 심판관들은 표의 화장이 반만 지워진

것에 주목한다. 화장이 지워진 것을 보고 “집행대상이 아니”(구병모, 2017, 238)라고 했지만 화장이 반만 지워졌다는 것은 표에게 죄를 묻는 것이며 이는 표가 완전히 무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방관과 중립을 가장한 2차 가해 외에도 표는 섬에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다. 이는 Ⅲ장의 논점과 연결되므로 Ⅲ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2. 퍼즐 맞추기 방식의 독서와 그 의미

수강생들은 우선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재독과 조모임을 거치면서 해당 텍스트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가시적인 논점들부터 심화 확장된 논점들까지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학생들이 찾아낸 논점은 ‘여장남자대회’와 ‘벗겨지지 않는 구두와 옷’이 내포한 함의와 상징성에 대해서이다. ‘여장남자대회’는, ‘남장여자대회’가 드물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여성의 ‘성상품화’와 관련된 의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텍스트에서 제시된 ‘두 개의 달 위를 걷는 모카신’과 연결지어 ‘역지사지’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벗겨지지 않는 구두와 옷은 여성을 억압하는 ‘코르셋’을 상징하며 남성인 표가 벗겨지지 않는 여성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것에서 ‘역지사지’의 의미를 부과했다는 의견이었다. 여장남자대회에 초대장을 받은 것은 애초에 한이었으나 한이 여장을 하는 것에 혐오감과 공포를 보이는 것에서 유추되는 ‘여성혐오’에 주목하여 ‘두 개의 달 위를 걷는 모카신’이 시사하듯이 타자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애초에 불가능하지만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막는 타자혐오에 대해 주목한 학생도 있다.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에서 제시된 여러 동화와 신화 이야기를 통해 수강생들은 동화와 신화 속의 여성혐오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갔다. 텍스트에 제시된 ‘카렌의 빨간구두’ 외에도 널리 알려진 안데르센과 그림 형제의 동화들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왕자에 의해서 구원받는 수동적인 여성상이나 ‘여적

여' 구도, 욕망을 추구하는 여성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의 여성혐오적인 동화들이 디즈니 픽사의 전복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는 반면, '선녀와 나무꾼' 같이 성범죄의 요소가 있는 한국 전래동화가 여전히 그대로 읽히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권선징악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배웠던 '콩쥐팥쥐' 등도 잔혹한 여성혐오를 담고 있음을 지적한 학생도 있다. 교수자의 추가적인 설명에 의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대표적인 마녀로 지목되는 '메두사' 신화가 여성에 대한 욕망과 거세불안을 가진 남성적 시선에 의해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된 학생들은 신화 속 메두사가 포세이돈에 의해 성폭행당한 피해자였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남성을 돌로 변하게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신화의 디테일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머리카락이 모두 뱀이 된 메두사 신화는 창세기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여성혐오와 맥락을 같이 하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 상황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부장사회에서 이어져 온 여성혐오의 양상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게 된다. 또한 신화가 계속 재해석 되고 신화 속 인물이 계속 재창조되며 동화 역시 재해석과 재평가, 재창조되어야 하듯이 문학 고전도 다시 읽혀야 한다는 논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특히 '젠더'의 시각에서 수행되는 재해석과 재평가는 문학(문화)사 전체를 다시 구축해야 할 거대한 작업이며, 저자와 독자의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진 현대사회는 '혐오'를 더 이상 예술로 포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조별 발표 학생들이 리서치를 통해 '하르피아이'와 유사한 신화적 상상력을 보인 텍스트로 '발푸르그스의 밤'을 제시한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는 중북부 유럽에서 널리 행하는 봄의 축제인데 춤과 함께 모닥불을 곁들이는 밤의 축제이다.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가 겪는 몽환적 현상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한국 여성주의 미술사의 계보를 잇다'는 설명과 함께 '발푸르그스의 밤: 한국의 마녀들'이라는 공연까지 소개해서 발표를 듣는 다른 학생들과 교수자까지 무척 흥미롭게 경청했다.

한편 성범죄자인 한 대신 한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대신 대회에 참가한 표가 심판과 처단으로 죽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질문은 수강생들의 토론 과정

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된 논점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심화된 문제를 제기하게 한 질문이다. 우선 표가 ‘증립’ 속에서 살아왔기에 자신은 죄가 없다고 토로하는 장면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은 대한민국 현실사회문제에서도 ‘증립 기어’라는 말이 부정적인 뜻으로 쓰일 수 있음을 논한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증립을 자처한다는 것은 결국 현상유지에 일조함으로써 피해자를 절망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방관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며 피해자 학생을 더욱 고립시키고 가해 학생이 마음껏 피해 학생을 괴롭히게 놔두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방관도 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죄의 무게감을 옷이 반만 고통스럽게 벗겨지는 걸로 표현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게다가 표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기보다는 계속 남 탓을 하고 자기변명과 자기합리화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좀 다른 시각에서의 의견을 제시한 학생도 있는데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표가 화살의 공격을 받게 된 것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고 이는 현실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인과관계 없이 여성이 당하는 공격과 유사하다는 의견이다. 여성의 복장을 하게 된 표는 현실사회에서 여성혐오범죄에 희생당하는 여성의 입장이 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이는 다시 다른 이의 신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는 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역지사지’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폭력을 (대항)폭력으로 대하는 방식도, 혐오에 대한 분노를 혐오로 표현하는 방식도 ‘역지사지’로 향하는 수단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는 본고의 III장에서 다루게 될 논점으로 연결된다.

Ⅲ. 이 방식은 ‘상호파괴적’인가. 소설과 현실에서의 대항서사

1. 허구서사 속 복수와 처단이 현실세계에 전하는 메시지

표는 다른 참가자 ‘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은 ‘신’과 달리 무고하며 ‘한’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게 되었다는 분노로 인해 그의 눈에 띈 여자의 형상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며 돌진한다. 어차피 홀로그램일 거라는 표의 생각과 달리 쓰러진 여인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는 실제였다. 표는 또다시 자기 잘못을 부정한다. 혼란과 공포를 준 사냥꾼들과 자기보존의 본능을 제외한 모든 인간다운 의식을 강탈해간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다고 변명한다. 그러던 표의 눈에 띈 것은 그가 죽인 여성의 에코백이었고 그 안에는 쪽지가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몰라도 나는 이런 상호 파괴적인 게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누구든, 이걸 발견한다면 가져가서 드세요. 그리고 부디 온 힘을 다해 도망치시기를. 장년의 평범한 여인이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어느 길목엔가 눈에 띄게 내려놓으려 했던 파스텔 톤의 에코백 안에는 과일 말고도 빵과 생수 등 각종 식량이 그득 담겨 있었다(구병모, 2017, 237-238).

즉 표는 자신을 도와주려 한 여인에게 각목을 휘둘러 죽게 한 것이다. 여인의 죽음이 표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누군지도 모르는 여인(의 형상)에게 표가 각목을 휘둘렀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죽은 여인이 남긴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런 상호 파괴적인 게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은 “명세서에 알맞게 지급되지 않은 과오의 우수리를 묵숨으로 받아내려는”(구병모, 2017, 231)행위, 즉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성범죄자들에게 대한 처단을 ‘상호 파괴적인 게임’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선행폭력에 대

한 단죄와 보복으로서의 대항폭력을 반대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다. 지속되는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 즉 대항폭력에 대해서는 줄곧 논쟁이 있어왔다. 폭력에 대한 저항방식으로 폭력을 택하는 것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간디부터 악마와 싸울 때 스스로도 악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니체의 사유 그리고 대항폭력을 ‘신적 폭력’으로 옹호했던 지젝까지 폭력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대립하게 된다. 혁명이나 독립운동 등도 폭력을 사용한 저항이었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지속되는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수강생들의 여러 의견 교환은 다음 절에서 소개한다.

현실사회의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성범죄자들을 섬으로 유인해서 처단하는 서사는 사적복수 또는 대항폭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일은 소설이나 영화 등 허구서사에서만 가능하다. 허구서사에서 재현되는 대항폭력을 현실사회에 대입해본다면 좀 더 실제적인 토론이 가능하리라는 가정 하에, 본 수업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여성혐오발언들에 혐오발언으로 되짚는 ‘미러링’이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이 파생하는 확장된 담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토론했다. 미러링은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미러링은 선행된 여성혐오언어 원본에 대한 대항서사이며, 혐오를 혐오로 받아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언어적인 대항폭력으로 볼 수 있다.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이 수록된 소설집 『현남오빠에게』가 기획되고 출간된 시기는 페미니즘 리부트의 시기였고 ‘메르스 갤러리’와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혐오의 표출이 극대화된 시기였으며 이에 대항하는 메갈리아의 미러링이 부상하던 때이기도 했다. 메갈리아와 그 뒤를 이은(좀 더 과격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알려진)위마드의 등장, ‘하르피아이’와 같은 괴물의 등장으로 느끼는 이들도 있고, 메갈리아와 위마드를 땀금류의 날개 같은 후드를 걸치고 날카로운 발톱 같은 활을 늘어뜨린 사냥꾼의 이미지로 연상하는 이들도 있다. 메갈리아와 위마드의 미러링은 혐오에 대한 혐오이다. 즉 ‘여혐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 엄밀히 말한다면 여성혐오에 대한 ‘분노’이겠으나 ‘미러링’ 전략의 특

성상 혐오에 대한 혐오라고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여성학자들이나 페미니스트 활동가들도 메갈리아와 워마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생물학적 여성’을 내세우는 워마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김선희는 『혐오 미러링: 여성주의 전략으로 가능한가?』라는 저서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때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악마화 된 워마드에 대해 진지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펼친다. 이미 주류질서에 편입한 여성학자 페미니스트들이 워마드를 페미니스트로 호명하는 데 주저하는 반면²⁾ 김선희는 워마드 역시 자신의 고유한 방식과 전략을 사용하는 페미니스트이고, 서로 상이한 전략과 입장의 한계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전략이 다르다고 페미니즘의 영역에서 배제시킬 근거는 없다고 말한다(김선희, 2018, 62). 부당한 여성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러한 성차별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것이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한 최소조건이며, 이러한 페미니즘의 최소조건을 만족한다는 점에서 워마드가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김선희, 2018, 61-62).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에서 표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여인이 이런 상호파괴적인 게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역시 방식과 전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의 내포작가는 상호파괴적인 게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인의 입장에서 서서 서사를 진행해 온 것인가?

자신 역시 2차 가해자로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려한 여인을 죽게 하고도 그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표’에게 주목한다면, 이 소설의 내포작가는 죽임을 당한 여인의 선한 의도와 평화주의적인 태도가 선한 결과와 평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동화와 인디언속담을 차용

2) 2018년 7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워마드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조한혜정은 “워마드를 ‘여성주의다, 아니다’로 구분하기보다 이례적 문화 현상으로 봐야 한다. 일부 여성의 과격한 언행에 집중하기보다 이들이 왜 이렇게 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조한혜정은 워마드가 페미니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김선희, 2018, 5).

하여 타자의 신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는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신화적 상상력을 거쳐 신화보다 더 신화 같은 실존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역지사지의 장(場)으로 표를 위치시킨다.

화장이 지워졌어.
 그러게. 화장이 지워졌네.
 그러면 이자는 집행 대상이 아니야.
 그래도 봐. 그전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저 나이든 여자를 죽였어.
 그러게. 화장이 반만 지워졌네.
 반도 아니야. 삼분의 일조차 되지 않아. 지워지다 말았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가발이랑 나머지 옷도 구두도 다 벗겨내자.
 좋아. 허물이 벗겨지는 자는 무죄. 벗겨지지 않으면 유죄(구병모, 2017, 238).

손들이 달려들어 옷을 잡아당기자 그전까지 피부의 일부인양 들러붙었던 한꺼풀의 옷이 떨어져 뜯어져 나갔다. 옷 곳곳에 붙어 나온 살점에서 악취가 풍겼다. 네소스의 함정에 빠진 헤라클레스, 아폴론과의 내기에서 패배한 마르시아스, 에우리디케를 영원히 잃고 여인들의 원한을 산 오르페우스, 도래할 새 봄의 파종을 위해 제 몸을 바치는 디오니소스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살가죽이 벗겨지거나 육신이 찢어진 허구의 이야기 속 남자들은 하고말았으나, 이 순간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표의 의식에 떠오른 것은 머리카락과 옷을 빼앗기고 굴 껍데기와 사금파리로 살이 도려내어져 살해당한 수학자 히파티아, 실존했던 그녀였다(구병모, 2017, 239-240).

철학 분야에서 신플라톤주의를 완성하고 수학 분야에서 디오판투스의 대수학을 완성한 히파티아는 라파엘로의 벽화 ‘아테네 학당’에서 소크라테스 바로 앞쪽에 자리한 여성 철학자이자 수학자로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플라톤 아카데미의 책임자로서 강의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총독인 오레스테스는 히파티아를 숭배했다. 기독교 공인 직후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키릴루스는 권력을 원했고 총독과의 긴밀한 관계를 원했다. 다신교도들을 몰아내고 세력을 확장

하고 싶어 했던 키릴루스는 수도승들을 시켜서 히파티아를 납치한다. 히파티아는 옷이 찢기고 굴뚝데기로 피부를 도려내는 잔인한 고문 도중에 죽었고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된다. 이는 문명의 시대를 끝내고 야만의 암흑시대로 향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옷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순간 ‘표’가 떠올린 여러 인물들 중 히파티아만이 실존인물이며 여성이다. 즉 이 소설은 타자의 입장이 되어보아야 타자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한다. 그것이 ‘상호파괴적인 게임’이 될지라도 역지사지의 입장에 처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집 『현남오빠에게』의 발문을 쓴 이민경은 “이야기 속에서건 밖에서건 여성은 너무 자주 죽었다”고 언급하며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에서, 남성은 그 자리에 직접 위치되어서야 드디어 유구한 ‘여성 살해의 역사’를 몸소 이해한다”(이민경, 2017, 281)고 논한다. 타자를 이해하게 되는 통로로서 ‘역지사지’를 말하는 것인데, ‘미러링’ 역시 혐오의 원본을 만든 이들을 역지사지의 위치에 앉게 하는 것이다. ‘상호파괴적’이라고 해서 선행폭력과 대항폭력이 같은 것이 아니며 원본과 미러링이 같은 것이 될 수도 없다. 한쪽만 편한 사회는 약자와 타자와 피해자가 침묵하는 사회이므로 한쪽만 편한 사회보다는 양쪽 다 불편한 사회가 낫다고 하는 것이다. 신화적 상상력을 경유한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은 현실 사회의 가장 논쟁적인 부분을 건드리며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리얼리즘을 지향하는 페미니즘 소설이 된다. 대항폭력에 대한 여러 의견과 더불어 현재 한국사회 뜨거운 이슈이기도 한 ‘미러링’은 수강생들이 가장 열띤 토론을 벌인 논점이다. 이를 다음 절에서 다룬다. 또한 실존 인물인 여성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히파티아 살해와 페미사이드에 관련된 학생들의 토론 역시 다음 절에서 소개한다.

2. 대항폭력과 대항서사에 대한 수강생들의 발표와 토론

서론에서 잠시 소개했듯이 ‘문학과 젠더’는 교양 선택과목이다. 필수과목이

아니므로 수강생들이 이 수업을 선택한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학기 초에 수강생들에게 이 수업을 선택한 이유를 써서 제출하게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별 갈라치기’와 ‘혐오’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한 자신이 ‘젠더’ 관련 이슈들과 페미니즘에 관해 잘 모르고 있다고 고백하고 제대로 알고 싶다고 쓴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문학’과 ‘젠더’가 어떻게 연결될지 기대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수강생들이 제출한 글을 통해서 학생들이 젠더 관련 담론들이나 페미니즘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최소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혐오에 대해 불편함과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수강생들은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여러 비평적 시각과 방법론들에도 흥미를 보였지만, 젠더 관련 개념들과 담론들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페미니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는 고백이 이어지게 된다.

또한 수강생들은 5주차부터 진행되는 발표와 토론 대상 텍스트들을 읽고 서평을 쓰면서 해당 작품들에 몰입했다. 세 번째 텍스트까지는 젠더 관련 논점들 중 특히 ‘섹슈얼리티’와 ‘폭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었는데, 학생들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과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박민정의 소설 「세실, 주희」와 「모르그 디오라마」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이는 시사성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장애아동 성폭력 문제를 다룬 공지영의 『도가니』와 캠퍼스 성폭력을 다룬 강화길의 『다른 사람』까지 함께 논하면서 수강생들은 섹슈얼리티가 왜 그렇게 폭력과 연결되기 쉬운지, 가해자 성별과 피해자 성별의 극도의 불균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했다. 또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2차 가해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현했다. 4번째 텍스트인 윤이형의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에서는 다른 논점들과 함께 ‘남자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실제로 없어지는 여자들’에 대한 논의를 소설 속, 현실 속 사례들을 들어서 논했다. 이러한 선행 수업들의 바탕 위에서 5번째 발표와 토론 텍스트인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에서는 대항폭력과 대항서사에 대해서 논하기에 이른다.³⁾ 설령 누군가 내게 폭력

을 사용했다고 해서 폭력으로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수강생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했다. 그런데 ‘사적 복수’의 차원에서는 반대하지만, 독재에 대한 저항이나 독립운동 등 대의명분이 뚜렷하고 폭력적인 수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대항폭력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배운 학생들의 입장에서 독립운동이나 민주화항쟁에서의 무기 사용 등 폭력적인 방식에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교수자 또한 이 논점에 개입해서 따로 추가적인 질문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수강생들의 의견 교환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나 비약 등이 없어서 지켜볼 수 있었다.

여성혐오언어에 혐오언어로 맞아치는 ‘미러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린 토론이 이어졌는데 ‘미러링’의 의도와 전략에 찬성하는 입장이 더 많았다. 여학생들이 찬성하고 남학생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다시 말하면 찬반 의견에 학생들의 성별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관찰했기에 ‘미러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해당 학생들 개개인의 성향과 경험에 의거한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반대하는 주장을 펼친 학생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모든 혐오발언이 듣기에 불편하다. 굳이 혐오발언의 양을 더할 필요는 없다.

혐오의 원본과 미러링이 부딪치면 결국 계속 혐오만 양산될 뿐이다.

- 3) ‘문학과 젠더’ 수업의 6번째 발표텍스트는 영화 <무스탕: 칼리의 여름>이고 7번째 발표텍스트는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이다. 문학과 젠더의 학제적 융합적 교과목이지만 아무래도 영상에 훨씬 친숙한 수강생들을 고려하여 문학성이 뛰어나고 함께 생각해 볼 논점들이 많은 영화 두 편을 포함하여 수업을 설계했다. 8번째 발표텍스트는 최은영의 『밝은 밤』이고 9번째 발표텍스트는 정세라의 『시선으로부터』이다. 한국현대사와 여성가족사가 교차하는 『밝은 밤』과 『시선으로부터』를 통해 학생들이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고찰을 성취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전체 수업의 마무리를 이렇게 설계했다. 보강 시간에는 특별히 한국근대문학을 선택하여 이기영의 여성성장서사와 김동인의 여성혐오서사를 대비하여 다뤘는데, 수강생들의 집중도가 무척 높았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에 대한 선입견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젠더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진보적인 이기영의 작품들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시대의 한계’라는 말의 한계를 직접 체감했고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었다.

지금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 갈등은 무척 심각한데 미러링은 갈등 해소
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러링에 반대하는 수강생들의 논거는 ‘혐오는 나쁜 것’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표출되었으나 이러한 의견들이 의도와는 달리 결
과적으로 가해자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을 때 반박하지 못하는
한계를 목격하게 되었다. 한편 미러링의 의도와 전략에 찬성하는 수강생들의
논거는 좀 더 구체적이었으며 다양했다. 또한 미러링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사
회변화를 바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이들의 논거와 주장은 다음과 같다.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영화 <서프라제트(Suffragette)>에는 이런 대사
가 나온다. 여성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참정권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폭력이었고, ‘대항폭력’이야말로 남성들이 반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불편함
은 조금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

메갈리아가 등장했을 때 수많은 남성들은 착한 페미니즘, 진정한 페미니
즘 운운하며 페미니즘의 투쟁적 힘을 빼앗으려 했다. 좋은 말만 해선 변하지
않는 세상은 모른 척하고 여성들의 과격함만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여성들
도 남성들을 모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뒤에야 형식적으로나마 여성들
의 눈치를 보는 수준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혐오반대’를 ‘남성혐오’라고 생각하지만 남성혐오
는 불가능한 것이다. 혐오는 강자가 약자에게 행할 때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
이다. 미러링은 남성들의 생활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로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여성혐오와는 다르다.

일베 등의 여성혐오는 ‘혐오’에 의해서 추동되고, 메갈리아의 미러링은
‘혐오에 대한 분노’에서 추동된다. 미러링은 혐오의 언어라기보다는 분노의
언어이다. 표현이 거칠다는 것도 여자가 하니까 거칠어 보이는 거 아닌가?

일베들이 하는 건 그동안 관심도 없었으면서, 여자가 하나까 난리치는 것이다. “김치녀” “보슬아치” “맘충” 등 여성혐오언어들이 만연할 때는 조용하다가 “한남충”으로 맞서니 그제야 혐오는 다 문제고 여자, 남자 사이 좋게 지내자고 한다. 기만적이지 않은가?

원본이 사라지면 미러링은 존재할 수 없다. 왜 원본을 공격하지 않고 미러링을 공격하는가?

오늘 발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시대에나 ‘마녀사냥’이 있었고, 어느 시대에나 페미니스트는 마녀취급, 괴물취급을 받았다. 한때 트위터에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 많이 인용되었던 문구는 “우리는 너희가 미쳐 불태우지 못한 마녀들의 후손들이다”이다. 위마드를 움직이는 동력에는 여자들의 사명감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를 뜯어고치고 다음 세대 여성들은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자는 사명감이 있다. 여성혐오세력이 그들을 죽여도 다른 이들과 다음 세대가 싸울 것이다.

수강생들의 토론 과정에서 교수자가 몰랐던 일베의 어휘들과 위마드의 어휘들을 알게 된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었으며 젊은 여성들의 분노 게이지도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위에 소개된 학생들의 논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분노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냉철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가해자를 움짤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가해의 행위는 멈추지 않는다는 직접/간접 경험에 의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폭력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 실존했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히파티아와 페미니스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대항서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토론의 축이 확실하게 기울게 된다. 한 학생은 입시논술을 준비하면서 히파티아가 재현된 라파엘로의 벽화 ‘아테네 학당’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때 논술 담당 교사는 다른 철학자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히파티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왜 중고등학교 때 히파티아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는지, 이

역시 여성혐오문화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별 발표에서 자료조사를 담당한 수강생은 히파티아(370-415)가 신플라톤주의를 완성한 철학자라는 이유로 기독교도들에게 살해당했으므로 이를 ‘이교도 살해’로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동시대 신플라톤주의자였던 남성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살해당하지 않았으므로 히파티아 살해는 페미사이드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은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페미사이드 문제로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페미사이드 사건으로 ‘강남역 살인사건’이 언급되었으며 최근 여성이 솟갓을 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한 사건도 여성혐오범죄이자 페미사이드에 속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에 대한 저항의 한 방식으로서 대항서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한 학생은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에서 ‘한’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으로 현실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정작 처단되어야 할 한은 표를 대신 섬에 보낸 채 또다시 빠져나갔는데 이는 현실사회에서 정작 처벌받아야 할 이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2차 가해를 일삼는 행태와 닮아 있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더더욱 대항서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미러링’의 방식에 반대 의견을 표출했던 학생들 중에서 대항서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 다룬 소설들처럼 문학적인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반론을 제기한 학생이 있었고,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반대쪽 학생들 중 하나가 ‘미러링’ 중에 문학적인 방식들, 비유나 반어 등 문학적인 방식과 재치가 돋보이는 어휘들도 있다고 반박해서 잠시 강의실에 웃음이 넘치기도 했다.

IV. 결론

다양한 동화와 신화를 인용하고 신화적인 실존인물 히파티아의 자리에 남성인물 표를 위치시킨 소설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은 비유와 상징이 뛰어

난 작품이다. 또한 두터운 의미의 층을 내포하고 각 구성요소들이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독자로 하여금 그 구성요소들을 조합하고 추리하여 의미망을 만들게 한다. 따라서 수강생들에게 단편소설의 미학을 향유하게 하기에 충분한 텍스트이다. 또한 페미니즘 소설집에 수록될 만큼 현재 한국사회의 젠더 이슈를 직접적/우회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므로 ‘문학과 젠더’ 강의에서 다루기에 안성맞춤인 텍스트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저자 구병모의 특색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저자의 다른 소설들과 차별화되며 선행학술논문에서 연구된 적이 없는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의 서사시학적 특징들과 함의들을 분석했다. 또한 실제수업에서 이루어진 수강생들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해당 문학작품이 학생들에게 주는 미학적/사회적 의의를 고찰했다. 동화와 신화가 기존질서를 수호하려는 지배계층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이상 여성혐오가 포함된다. 그러나 동화와 신화에 대한 해석과 가치판단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해석되고 재평가되며 재창조된다. 문학텍스트에서 동화와 신화를 차용하는 것 역시 재해석과 재창조의 방식이며 이를 통해 문학의 방식으로 현실사회에 개입한다. 수강생들은 신화적 상상력을 경유하여 현실사회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소설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을 읽고 조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사고의 확장을 표현할 수 있었다.

수강생들은 토론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디즈니 픽사의 콘텐츠가 기존동화의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를 전복한 재창조의 결과물들인 반면 한국의 문화산업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약한 것에 대해 논했고, 중립의 함정과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방관의 죄와 2차 가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토론을 이어갔으며, 소설텍스트 내에서 ‘상호파괴적인 게임’이라고 명명된 행위가 가해자를 역지사지의 지평에 서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허구서사 내에서 형상화 된 대항폭력은 현재 학생들이 처한 현실사회에서 여성혐오에 대한 대항서사인 ‘미러링’에 대한 토론으로 연결되었는데, 여성혐오의 언어들과 그에 대한 미러링은 서로 간에 혐오만을 양산할

뿐 젠더 갈등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들도 제시되었으나 그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미러링의 의도와 전략에 동의하는 의견들을 발표했다.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표가 옷과 함께 살점이 뜯기는 순간에 마녀사냥 페미사이드의 희생자였던 히파티아를 떠올린 것처럼 미러링은 혐오의 생산자들을 ‘역지사지’의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미러링에 찬성하는 수강생들이 훨씬 구체적이고 풍부한 논거들을 제시해서 생동감 넘치고 풍부한 토론이 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오랫동안 무수히 난무했던 여성혐오단어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한남충’이라는 미러링으로 받아치기 시작하자마자 혐오는 나쁜 것이라며 메갈리아/워마드를 악마화하는 담론들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토로했으며, 원본이 사라지면 미러링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미러링이 아닌 원본을 공격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혐오’는 단순히 ‘싫어하고 미워함’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억압의 의미이므로 남성중심 가부장사회에서 ‘남성혐오’는 존재할 수 없으며 미러링은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분노의 언어이며 역지사지의 방식이라는 열띤 논쟁도 제기되었다. 수강생들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현재 한국사회의 젊은 여성들의 분노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냉철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소설텍스트에서 언급된 ‘여성이라서 살해당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실존인물 히파티아’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도 낯설지 않은 페미사이드에 대한 토론에서는 대항서사의 필요성이 좀 더 논의되었으며 대항서사로서의 문학과 대항서사의 문학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면서 무척 흥미로운 수업이 되었다. 특히 ‘마녀사냥’과 연관된 서양의 대항담론을 가져와 한국에서 여성주의 미술 공연에 접목한 ‘발푸르기스의 밤: 한국의 마녀들’이라는 공연을 학생들이 발표하고 사유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수업시간에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교수자에게도 인상적인 체험이었다.

‘약탈하는 여인’이라는 뜻의 신화 속 괴물 ‘하르피아이’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정의를 구현하는 적극적인 심판자가 되었으며, ‘상호파괴적인 게임’을 반대했던 여인은 자신이 도와주려 했던 표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 이는 선한

의도와 평화지상주의가 반드시 선한 결과와 평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저자의 인식을 반영한다. 단편 소설 하나에 상당히 많은 논점이 담겨 있고 판타지적인 방식으로 현실사회를 형상화 하는 기법도 뛰어나기에 이 소설텍스트는 또 다른 시각에서 연구가 이루어져도 좋을 만한 텍스트이다. 본고에서는 학제적 융합적 교과목인 ‘문학과 젠더’ 수업에서 수강생들의 발표와 토론에 활용되었던 방식을 위주로 논의를 전개했으며 ‘문학’과 ‘젠더’라는 거대담론의 융합이 이루어내는 사고의 확장과정의 한 전범을 실증적으로 고찰했다는 것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젠더’ 이슈는 언제나 논쟁적인 것이었고 본고에서 다룬 텍스트도 논점이 풍부한 작품이기에 본 논문 역시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며 해당 텍스트를 다른 시각에서 분석한 후속 연구도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 문헌 ■

- 고영진, 2017, 「단편소설의 외연과 전략적 수사-구병모 단편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1권, 제2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53-179.
- _____, 2018, 「환상소설의 결말에 관한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5호, 현대문학이론학회, 5-28.
- _____, 2022, 「캐릭터AI와 현대환상서사의 새로운 지형」, 『어문연구』 제112호, 어문연구학회, 145-170.
- 구병모, 2017,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 조남주 외, 『현남오빠에게』, 다산책방.
- 김리나, 2017, 「메갈리안들의 ‘여성’ 범주 기획과 연대」, 『한국여성학』 제33권, 제3호, 한국여성학회, 109-140.
- 김보명, 2018, 「혈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저항」, 『한국여성학』 제34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1-31.
- 김선희, 2018, 『협오 미러링- 여성주의 전략으로 가능한가』, 연암서가.
- 나병철, 2010, 「청소년 환상소설의 문학교육적 의미와 ‘가치의 세계」, 『청람어문교육』 제42호, 청람어문교육학회, 399-430.
- 박정오, 2006, 「여성SF작가가 꿈꾸는 가상세계 속의 신화와 젠더」, 『영어영문학』 제52권, 제3호, 영어영문학회, 627-643.
- 안아름, 2017, 「현대소설에서 나타난 생태학적 정체성 양상 연구」, 『문학과 환경』 제16권, 제4호, 191-222.
- 에코, 움베르토, 2009, 김운찬 역, 『이야기 속의 독자』, 열린책들.
- 이민경, 2017, 「여성의 이야기에 오래 머무른다는 것은」, 조남주 외 『현남오빠에게』, 다산책방, 273-283.
- 정연희, 2022, 「구병모 소설의 재난의식과 에코페미니즘의 상상력」, 『문학과 환경』 제21권, 제4호, 문학과 환경학회, 233-260.
- 조주현, 2019,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페미니즘연구』 제19권, 제2호, 페미니즘학회, 147-160.

<Abstract>

The Extended Meaning of the Novel Intervening in
Reality Via Mythological Imagination
- Based on Presentations and Discussion Classes with
Text from *Harpies and The Night of the Festival* -

Lee, Chae-Won

Hannam University

This thesis discusses the process of students' thinking expansion based on the actual class cases that analyzed, presented, and discussed the novel *Harpies and the night of the festival*, which actively borrowed fairy tales and myths in the Literature and Gender class. This novel includes issues such as incomprehension of others, femicide, and counterviolence, and through these issues, the most directly realized point of controversy in Korean society is examined. This novel is a text that leads to an exciting reading process by quoting stories of fairy tales and myths and stories of mythical characters that existed in a detailed composition and arranging them like puzzle pieces. Therefore, the students experience the aesthetics of short stories, recognize the way literature intervenes in the real society, and expand the confluence of literature and gender. In the novel, the male character who participated in the men's tournament and became the target of the hunt did not even try to understand the other person, but at the last moment he remembers the

philosopher and mathematician Hypatia who was the victim of witch hunting and understands the position of others. Mirroring, a mirror reflection on misogynistic language, was selected as a point of discussion to apply the counterviolence in the novel to the current real society. Literature has social significance as a counter discourse and counter narratives such as mirroring can pursue literary aesthetic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discusses that students can enjoy the novel, experience the aesthetics and social significance of literature, and cultivate the ability to think about gender through literature.

Key Words: *Harpies and The Night of the Festival*, Literature and Gender, Mythology, Counter Narrative, Mirroring

논문 투고일: 2023년 11월 27일

논문 심사일: 2023년 12월 02일~12월 13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2월 20일